

대통령님 하인스 워드 오찬 접견 관련 외신 반응

1

- ◇ <AP>, <AFP>, <Reuters> 등 주요외신들은 대통령님과 한국계 미식축구 스타 하인스 워드의 만남을 관심 뉴스로 일제 타전하였으며, <NYT>, <WP>, <ESPN>, <Fox Sports> 등 주요언론은 물론 <Pittsburgh Tribune-Review>, <Seattle Post Intelligencer> 등 지역 언론들도 관련 통신 기사를 전재 하며 높은 관심을 표명함.
- 특히 <ESPN>은 ‘대통령님께서 워드에게 미식축구공을 던지시는 장면, ‘유니폼을 들고 함께 환하게 포즈를 취하신 모습 등 하인스 워드의 대통령님 접견 관련 사진을 ‘포토 와이어’란에 대거 게재하였으며, 하인스 워드 소속팀 <Pittsburgh Steelers>는 구단 홈페이지 1면에 대통령님 접견 소식 및 관련 대형사진을 부각 게재함.
 - 이외에 외신들은 주로 하인스 워드가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으며, 한국인들에게는 혼혈인 문제 등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도함

1. 보도 현황

- 슈퍼볼 MVP 워드, 자신의 핏줄을 자랑스러워해 (미 NYT, 4.4, AP 기사 전재)
 - 슈퍼볼 MVP 하인스 워드는 “어렸을 때는 부끄러워했던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”고 기자회견에서 밝힘.
 - 워드는 화요일 노무현 대통령과 오찬을 갖고, 사인이 들어간 미식축구공, 모자, 그리고 유니폼을 선물함. 청와대에서의 식사에 앞서 노 대통령은 과감하게 미식축구공을 워드에게 던졌음. “영웅으로 돌아왔으며,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하인스 워드를 보며 큰 꿈을 가질수 있게 됐다”고 그는 말함.
- 슈퍼볼 MVP 워드, 자신의 핏줄을 자랑스러워해 (미 WP, 4.4, AP 기사 전재)
 - 뉴욕타임스와 같은 AP 기사 전재이나 대통령님께서 워드에게 미식 축구공을 던지는 사진을 기사 우측에 함께 부각 게재함.
- 워드, 한국에서 영웅으로 환영 받아 (美 USA Today, 4.4, AP 기사 전재)
 - 뉴욕타임스와 같은 AP 타전 기사로 워드와 어머니 입국 사진 함께 게재

(’06. 4. 4, 대통령님 하인스 워드 오찬 접견 관련 외신반응, 해외언론-해외홍보원)

o 한국 지도자, 스틸러스 워드의 쿼터백으로 변신 (Reuters, 4.4)

- 피츠버그 스틸러스 리시버 하인스 워드는 한국으로 금의환향 하였으며, 노 대통령과 전통차를 함께하고 짧은 거리에서 대통령의 볼 패스도 받음.
- 노 대통령은 웃으며 하인스 워드 모자를 청와대로 맞이했으며, 워드는 스틸러스 유니폼, 모자, 미식축구공을 증정했음. 노 대통령은 5야드의 패스를 확실한 리시버에게 던졌음. 그는 “이 유니폼을 벽에 걸어두거나 양복위에 입어야겠다” 말함

o 한국태생 미식축구 스타 영웅적인 환영을 받아 (AFP, 4.4)

o 한국에서의 두 번째 날 -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다

(미 Pittsburgh Tribune Review, 4.4, AP 전재)

- 피츠버그 지역지로 한국에서의 첫째날, 둘째날 등으로 하인스의 한국내 동정을 AP 기사 전재를 통해 시리즈로 전달하고 있으며, 관련 기사 우측 Photo Gallery란에 대통령님 접견 관련 사진을 다수 게재.

o 워드, 한국의 영웅 (Pittsburg Steelers 구단 공식 홈페이지, 4.4)

- 워드가 대통령님과 오찬을 하고 선물을 증정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함께 대통령님께서 스틸러스 86번 유니폼을 들고 워드와 함께 환히 포즈를 취한 사진을 홈페이지 1면에 부각 게재함.

o 슈퍼볼 MVP 하인스 워드는 자신의 출생지 방문에서 핏줄을 자랑스러워해

(미 FOX Sports, ESPN, 4.4, AP 전재)

- ESPN은 Photo Wire 섹션에 대통령님 접견관련 다수의 사진을 게재

o 영웅의 귀환 (미 Sports Illustrated, 4.3, AP 전재)

- 권위있는 미 스포츠 전문지로 대통령님과의 오찬 계획 등을 워드 모자의 사진과 함께 게재

o 슈퍼볼 영웅의 한국 방문이 인종문제에 대한 성찰을 고취시켜 (미 VOA, 4.4)

o 슈퍼볼 MVP 워드, 자신의 핏줄을 자랑스러워해

(美 Seattle Post-Intelligencer, 4.4, AP 기사 전재)

(’06. 4. 4, 대통령님 하인스 워드 오찬 접견 관련 외신반응, 해외언론-해외홍보원)

※ <Detroit Free Press>, <Austin American-Statesman Sports Newsmakers>, <Arizona Republic> 등 다수의 지역 언론들도 AP 기사를 전재하며 워드 방문 관련 소식을 전달함.

2 보도 평가

o 美 일반대중 대상 대통령님 이미지 제고

- 대통령님과 하인스 워드의 만남이 미국 스포츠 채널, 지역신문, 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거 전달됨으로써 미 일반 대중들에게 대통령님에 대한 인지도 및 호감도를 크게 제고한 것으로 평가

o 韓美 동맹관계 발전에 대한 긍정적인 상징성 부여

- 미식축구는 미국 국기라고 할 수 있는바, 한미 혼혈 출신의 스타 워드가 대통령님과 볼을 주고 받는 장면, 스틸러스 유니폼과 취한 환한 포즈 등은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대한 긍정적 상징성 부여

o 한국의 개방적 국가 이미지 홍보

- 하인스 워드를 통해 혼혈인 문제에 대해 대통령님 및 한국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갖게 된 사실이 부각됨으로써 한국의 개방적 국가이미지를 홍보